

## <작은 돌멩이>

'17년도 청렴에 관련해 공직부문과 일반부문으로 나뉘어져 많은 수기들을 보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수기는 '군대에서 부하장교가 직속상관에게 충격을 드리다' 였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군대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나 또한 군필자로서 군대의 상명하복 체계를 경험해보았고, 자신의 신의, 청렴을 위해서 간언을 하는 게 쉽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이 대위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인상깊었다. 나는 병사 출신으로 24개월을 공군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하였고, 오랜 기간동안 병사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요직에 있었다. 상병 초부터 14개월동안 새내기 생활관장을 연임하였고, 상병 말부터 7개월 동안 부서 내 최고참으로 있었다. 복무했던 곳은 150명 정도 되는 작은 부대여서 간부, 병사 할 것 없이 두루 친하게 지냈다.

어느 날, 통신반에 사이버지식정보방('사지방') 이용 관련하여 공문이 내려오게 되었다. 내용인즉슨, 병사들의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 시간에 대한 관리현황과 불법사이트 접속내역을 단속하는 것이었다. 우리 부대는 격오지였기 때문에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이용하는 데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개개인의 하루 최대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제약을 걸었고, 모든 병사들은 사이버지식정보방 출입일지를 작성하게 되어있었다. 하지만 예전부터 많은 인원들이 이용시간인 2시간을 초과하기 일쑤였고, 출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나도 저 계급이었을 때는 규칙을 무시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정작 이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암묵적인 관행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었고, 새내기 병사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었다. 나로서는 병사들 간의 계급의 차이가 있더라도, 받는 혜택이나 업무 등에 대해서 공평하게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번 공문이 악폐습 중 하나를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시간과 출입일지를 점검해본 결과, 나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저 계급에서부터 고 계급까지 대부분의 병사들은 규율을 어기고 있었다. 특히 고 계급일수록 정도가 심하였고, 그 중에는 같은 통신부서 후임도 있을 정도였다. 계급에 상관없이, 부서에 상관없이 규율에 따라 처리하기로 마음 먹었고, 보고할 문서를 정리하였다.

그날 밤 청소시간이 끝난 후 점호를 위해 상황실로 가던 도중에 누군가 나를 불러세웠다. 몇몇 타부서 선임들이었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셨다. 나는 그 순간 무슨 일인지 아리송했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바로 사이버지식정보방 규율을 어긴 명단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는 것이었다. 그새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소문이 난 것이었다. 부탁한 선임들은 나와 친한 선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겨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때마침 점호가 시작되어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점호가 끝난 후에는 후임들이 찾아와 똑같은 부탁을 하였고, 이 상황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과연 군 생활을 같이 하는 전우로서, 친하다는 이유로 규율을 어기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못 본척 해야하는가?’, ‘군 부대의 팀워크와 화합을 위해서 괜한 불씨를 만드는게 아닐까?’, ‘이번 행동으로 인해 남은 군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많은 고민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규율대로 행동하자’ 였다. 새내기 병사들의 투표와 주임원사님이 선출해준 새내기 생활관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았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규율대로 행동하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평소 생각과 행실이 영향이 큰 것 같았다. 그런데 나에게 피해가 온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을 봐주거나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고 나조차도 용납이 되지 않았다.

결국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는 모든 부탁을 거절하고, 출입일지 위반 및 불법사이트 출입 내역을 반장님께 보고드렸다. 이로 인해 많은 인원들이 군기교육대를 가게 되었고, 불법사이트 접속한 병사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처음에는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며 많은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임들과 선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많은 인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제대 한 후, 지금까지도 후임에게서 가끔 연락이 오면 이 때의 일을 주제로 많은 대화를 한다.

“바닷가에서 큰 돌멩이를 하나 던져서 다시 주워오는 것과 작은 여러 돌멩이를 던져 다시 주워오는 것. 무엇이 더 힘들까?”

청렴이란, 큰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군대에서 겪은 일은 한번쯤 눈감아주고 넘어갈 법한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신념에 따르면, 일순간은 손해를 볼 수도 있으나 후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자신이 자신에게 거짓이 없으면, 항상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대대장에게 충격을 준 군수장교처럼.